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을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오늘과 다음 주일 2006 사역박람회(Ministry Fair) 열려 1층 로비에서 각 사역위원회별 부스 마련해 자원봉사자 모집해



“진정한 꿈의 시작”(the Start of a Real Dream)이라는 제목으로 2006 사역박람회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 1층 로비에서 각 사역위원회별로 부스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된다.

매년 연말마다 행사를 가지고 있는 사역 박람회의 목적

은 첫째, 교회 내에서 섬기고 봉사할 구체적인 사역을 원하는 분들과 사역이 필요한 각 부서를 원활하게 전체적으로 연결해 주기 위함이며, 둘째, 교회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고 그것을 교회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역박람회는 오늘과 11일(주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층 로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역 박람회에 참여하는 방법은 사역 박람회 브로셔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관심 가는 곳을 확인하고, 사역 박람회장에 마련된 부스로 찾아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관심 있는

곳이면 몇 군데라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결과에 따른 사역의 구체적인 개시는 각 사역부서장이 전화로 개별적으로 연락하게 된다. 또한 교회 사역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실 분은 자원봉사자 연결 데스크로 언제든지 찾아오면 된다. (2면에서 계속)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부터 9일까지 드려져

은혜위에 은혜러라! 는 주제로 5일 동안 드리게 돼



드디어 내일부터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특별새벽기도회는 내일부터 9일(금)일까지 5일 동안 드리게 된다. 장소는 대예배실이고 시간은 오전 5시 30분이다.

올해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 주제는 ‘은혜위에 은혜러라!’ (요 1:16)이다. 이번 새벽기도회 시간에는 5일 동안 7개 교구가 돌아가면서 특송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교회내 사역과 직책이 중복됨으로 인해 특송을 한 사람이 여러분 감당하게 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함이다.

월요일은 1교구, 화요일은 2교구, 수요일은 3,4 교구, 목요일은 5교구, 금요일은 6,7 교구가 함께 특송을 담당하게 된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올해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슴에 깊이 느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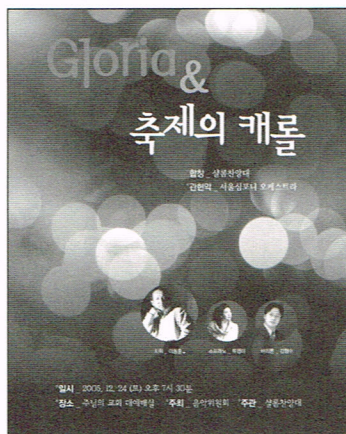
공산권 나라 베트남에 자본주의 법안 마련해 주어 법조인으로 전문인 선교하고 돌아와

권오승 장로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로 넘어온다면 동북아시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이용훈 대법원장을 단장으로 한 법조인 팀이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류와 경제 및 문화협력 차원에서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사전 방문하여 정밀조사했고,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이 어느 정도 정상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하여 우리나라를 모델로 한 개혁의 기틀이 짜여지고 있다. (3면에서 계속)

“Gloria & 축제의 캐롤”

12월 24일 토요일 19:30, 음악예배로 드려져



올해 성탄절 전야에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음악예배를 드리게 된다. 올해는 3부 살롬찬양대가 주관하고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하게 되며, 연주될 작품은 교향곡 ‘Gloria’와 ‘축제의 캐롤’이다. 특별한 점은 교향곡 ‘Gloria’ 10개 악장 전 곡을 라틴어로 부르게 된다는 것인

데, 이를 위해 살롬찬양대는 지난 8월부터 이번 성탄절 전야 음악예배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왔다. 교향곡 Gloria는, 3부 살롬찬양대 지휘자이며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작곡 및 합창전공 교수로 재직중인 이동훈집사가 10개의 악장으로 나누어 칸타타 형식으로 직접 작곡한 작품이다. 이 곡은 1999년에 안산시립합창단에 의해 예술의전당에서 초연되었고, 기독교방송 등에서 방송되어 오고 있다. 이번 음악예배 준비과정에서 살롬찬양대원들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부르기도 하는 Latin어 그대로 합창하기를 원했으며, 그 결과 더욱 많은 연습시간이 필요했다.

음악예배의 두번째 순서는 Mallote 작곡의 ‘주기도’를 바리톤 독창으로 드리게 되며, 세번째

순서는 ‘축제의 캐롤’로서 성탄절 전야의 기쁨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 ‘축제의 캐롤’은 찬송가에 있는 성탄 찬송과 일반 캐롤을 모아 성명 미상의 편곡자가 편곡한 원곡을 이동훈 지휘자가 이번 음악예배를 위해 합창과 관현악으로 다시 편곡한 곡이다. 12월 24일(토) pm 7:30에 대예배실에서 열리게 될 이번 음악예배에는 주변의 안 믿는 가족, 친구들도 함께 초청하여 이들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기회로 삼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물론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들이 함께, ‘Gloria’를 통해 주님께 영광드리며, ‘축제의 캐롤’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같이 기뻐하고 즐기는 뜻깊은 성탄절 전야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교회 유명 목회자 24명 릴레이 특강

CTS기독교 TV로 방영돼

문동학 담임목사 '사도 요한 선교 리더십편' 방영예정

한국교회 유명 목회자 24명 릴레이 특강 '성서속 지도자 리더십을 배우다'가 '세계영상선교센터' 12인의 예수님의 사람들(참조기사/ 국민일보 9월 30일 금요일, 기독교뉴스)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사이트 세계영상선교센터 www.wmmc.or.kr을 클릭하시면 동영상 볼 수도 있고, CTS 기독교 TV를 통해 10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주일 6개월간 방영되고 있다.

방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본방송 오후 5-6시), 주일(재방송 오후 7-8시)이다. 문동학 담임목사의 '사도 요한 선교 리더십편' 방영일은 다음과 같다.

11월 28일(월요일) 1부 본방송 1시간(오후 5-6시)

12월 4일(주일) 1부 재방송 1시간(밤 7-8시)

12월 5일(월요일) 2부 본방송 1시간(오후 5-6시)

12월 11일(주일) 2부 재방송 1시간(밤 7-8시)

이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함께 성경인물을 통한 영적 리더십을 배우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함글함글 문예지 발간 예정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매주일 나오는 함글함글에 다 신지 못하는 성도들의 간증, 수필, 시 등을 모아 함글함글 문예지 별책을 만들려 합니다.

글을 내 주실 성도는 4층 교역자실 간사에게 교구구역과 이름, 연락처와 원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고는 E-MAIL로 주시면 편집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예지 발간은 글이 모이는 대로 12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면에 이어서)

오늘과 다음 주일 2006 사역박람회(Ministry Fair) 열려

이번 사역 박람회를 통해 2006년 한 해 동안 사역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최적의 사역지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사역 박람회장에서 모자원에 보낼 성탄선물 보내기 신청도 함께 받게 된

다. 또한 중랑노인종합복지관과 연결된 불우노인 140명과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성탄선물보내기 신청도 사역 박람회장에 마련된 부스로 찾아가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오늘배부될 사역 박람회 브로셔를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4부 예배 간증, 프로골퍼 김형신 감독



4부 예배 "오늘"에서는 프로 골퍼 김형신 감독의 골프와 인생의 간증을 듣는다. 특별히 그의 역경의 삶에서

만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의 인생이 회복된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게 된 체험을 그의 골프 인생을 통해 나눌 예정이다.

박세리를 키워낸 명감독으로, 치명적인 병마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나약한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체험은 그만이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간증이 될 것이다. 김형신 감독의 인생 이야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할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모쪼록 교우들이 4부 예배를 통해 전도하는 기회로 삼길 바라며, 교회와 예배가 낯선 이웃을 모시고 와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란다.

구역 모임, 7-3 구역

구역 모임 청계산 기도원에서 가져

지난 주 구역 공부가 끝난 후 다음 구역 공부를 기도원에서 하는 것이 어떠한 구역장의 제의에 그날 구역 공부로 인해 성령 충만한 구역 식구들 모두가 기쁘게 찬성, 청계산 기도원으로 만장일치를 보았다. 다음 주, 저녁 7시 구역에서 음식관계 최고의 권위자인 이영남 권사의 추천으로 청계산기슭에 있는 토담집에서 7교구 3구역 식구들은 이호교구목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8시경 청계산 기도원으로 향했다.

십 수 명이 앉을 수 있는 13호실 방에 모여 앉은 구역 식구들의 표정과 이호목사의 설교 자료 파일을 조그만 탁자 위에 내려놓고, 구역 식구들에게 찬양곡을 나눠 주는 이호목사의 표정에서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산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이어서 창세기 18:1의 말씀과 시편119:165과 예레미야 33:23의 말씀을 통해 이호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를 통해 강조하였다.

또한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마소서"와 외쳐 부르는 찬송과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며 "일어나 걸으라"는 찬송 속에서 지치고 주저 앉아버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였다. 또한 "할 수 있다 하신 이"란 찬송과 뜨거운 말씀의 열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으며 이를 "감사 찬송"으로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뜨겁게 충만한 성령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능력이 온 방에 가득하였다.

이어서 각자 벽을 향해 앉아서 큰소리로 외쳐 부르는 기도 시간에서는 성령에 사로 잡혀 통성기도를 넘어 외쳐 부르는 이호목사의 기도 속에 우리 모든 구역식구들은 크게 울며 소리치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용서를 빌며 간구하고 감사하는 기도 가운데 또 청계산을 올리는 우리의 외침 속에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고, 오직 정지된 시간 속에 이 조그만 방에 나와 주님만 계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청계산 기도원으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체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길가에교회 리모델링 완료해



길가에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스케줄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어 앞으로 2~3일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금주수요일에 의자 등 비품이 들어오게 되며, 기증된 피아노 세대는 금주목요일 제자리에 놓이게 된다. 다음 주일(2005년 12월 11일) 오후 5시 남양주시 동화중고등학교 강당(여호수아홀)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며, 예배 후 학교 식당에 만찬이 준비된다.

길가에교회 대부분의 집회는 오는 12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주일1부 예배(오전 9시 30분)와 교회학교 모임을 내년 1월 둘째 주(2006년 1

월 8일)부터 있게 된다. 주일과 겹치는 관계로, 성탄절예배와 신년예배는 온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게 된다. 새가족반을 제외한 각 양육클래스는 새해 2월 중순경에 개강할 예정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길가에교회 홈페이지(gilgae.org)를 참조하거나 교회전화(031-552-2273~4: 오는 12월 8일 개통)를 이용하면 된다.

길가에교회를 위한 마지막 번식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동화중고등학교 채플에서 있으며, 이를 위해 오후 3시 20분에 정신여중고 정문에서 승합차가 출발한다.

PTP 기도회

2005년 마지막 집회 이번주 토요일 오전 10시!



올해 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영적회복과 기도의 회복을 누렸던 PTP(학부모/교사 기도회)의 올해 마지막 집회가 이번주 토요일에 열린다. PTP는 봄학기과 가을학기 나뉘어 진행되는데 이번주 토요일이 가을학기

마지막 집회이다. 전도사님들의 은혜로운 찬양과 학부모에게 도전이 되며 열정적인 말씀 그리고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있는 PTP는 올한해 동안 많은 간증과 은혜가 되었다.

특히 마지막 집회는 찬양집회로 준비되어 있으며 올 가을학기부터 시작한 소그룹모임도 갖게 된다. 올 가을학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아래 홍민기목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학부모와 교사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깊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주 토요일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시대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 가을학기 마지막 집회에 지금까지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참여를 기대한다.

오늘 기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내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구역 모임, 6-3구역

6-3구역은 지역적으로는 논현동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구역이다. 임창남 집사를 구역장으로 안혜정 집사를 권찰로 5-6가정이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고 있다.

이 구역은 논현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 방을 하나 정기적으로 예약하여 그곳에 목요일 저녁마다 구역식구들이 함께 모여 같이 식사하고 구역원들이 번갈아가며 교대로 과일을 준비하여 가져온 것을 함

께 나누는 것으로 구역 모임을 시작한다.

이 구역의 특징은 구역원들이 구역 모임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우 화기 애애한 분위기에서 구역 모임이 진행되었다.

지난 주일에는 최근에 어느 가정이 외국으로 떠나게 되어 강원도 원주로 구역식구들이 함께 1박 2일로 MT를 떠나 떠나는 구역 식구 송별식도 함께 해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따뜻한 친교를 나누고 돌아오기도 했다.

구역장 임창남 집사와 권찰 안혜정 집사는 매우 헌

신적으로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모임을 갖는 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구역원들을 기다렸고 권찰은 전화와 문자로 구역 모임이 있음을 구역식구들에게 당일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일주일 동안 각자가 생활하며 느꼈던 내용들을 진솔하게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구역 식구들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중보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구역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청년 대각성 집회 은혜 중에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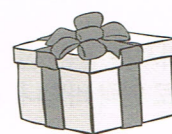
수꾼으로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하였다.

이 날 말씀을 전한 청년공동체를 섬기는 윤은성 목사는 이 시대의 영적 각성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영적 생명력의 회복에 기초한 의식의 각성, 믿음의 각성, 용기의 각성을 도전하고 역사와 시대와 향한 사명의식의 회복,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의 회복, 세상을 향한 도전의 용기를 회복하여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시대를 변혁하며 부흥의 주체가 되어 온 세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부흥의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청년들과 사역자들, 섬기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간절히 시대를 깨우는 영적 각성을 위해 한밤을 기도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었다.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7시 두 번째 영적대각성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공동체는 연말연시를 동시에 맞이하여 다시한번 기도로 한해를 마감하며 간절한 기도로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드리고자 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

성탄선물 보내기 행사 계획중



하프타임 사역팀에서는 복지관 노인들에게 김장김치를 보내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추수감사주일부터 홍보하여 사역박람회장에서 김장김치 보내기 지원서명을 받는다. 약 140여명분으로 자세한 명단에 사인하고, 12월 20일까지 택배로 복지관으로 우송하거나 18일 주일에 교회로 가져오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4, 11일

2주간 있을 사역박람회를 통해 홍보가 될 예정이다. 또한 모자원 어린이들에게 연말 성탄선물 보내기 행사를 겸하여 계획하고 있다. 모자원과 상의하여 어린이들의 성탄선물 목록을 받고 성도들이 선물을 직접 지목하여 선물을 보내는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방식은 예년과 동일하다. 이 행사 역시 사역박람회 기간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1면에 이어서)

공산권 나라 베트남에 자본주의 법안 마련해 주어 법조인으로 전문인 선교하고 돌아와



사법개혁은 한 나라의 제도와 관행 그리고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공산권은 사법개혁 역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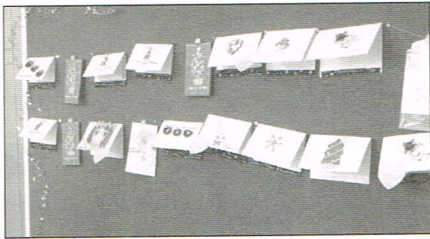
고, 자본주의 시장이 정착해야 크리스천들의 전도여행이 원활해질 수 있으며, 남북관계가 언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북녘에 자본주의 시장이 입박했다면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승 장로는 서울대학교 법대 학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대 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2003년 6월에는 아시아법연구소를 서소문에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교회에서

는 선교사를 통한 선교사역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문인들을 통한 전문인 선교사역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다 효과적인 선교

방과후학교 미술활동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 행사 가져



방과후학교에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를 하였다. 원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만들었다. 지난주일(27일)에는 만든 카드를 로비에 전시하였고, 교

회학교 교사들과 성도들이 학생들이 만든 카드를 구입하였다. 학생들이 정성들여 만든 카드는 양이 많지 않아서 2부 예배 후부터 3부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만 판매하였다. 학생들은 스스로 만든 카드를 전시하고 판매해본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했다. 몇 주간 똑같은 카드를 반복적으로 만들고, 부속품을 붙이는 작업을 통해 노동이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학생들이 만든 카드를 구입한 성도들은 정성스럽고 색다르게 디자인된 카드에 학생들의 수고가 보인다고 말했다.

몽골 샤르하드 지역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위한 미션 콘서트



청년공동체에서는 오늘 오후 3시 중예배실에서 몽골 샤르하드 지역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위한 선교 음악회를 개최한다. 청년공동체내의 숨은 음악의 인재들을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소망의 바다'라

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CCM 사역자도 선교 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찬양을 드리게 된다. 청년공동체내의 다양한 성악과 기악, 클래식과 현대 음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재능있는 음악인들의 무대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청년공동체 내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악적 재능을 십분 발휘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몽골 선교를 위한 의미있는 섬김과 나눔을 감당하게 된다. 현장에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하니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입장권을 구입해 주시면 몽골 도서관 건립의 후원금으로 100% 드리지게 된다.

4부예배를 섬길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니다.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4부 예배 "오늘"에서 새가족 리더 훈련(TLC 27))을 모집합니다.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들에 대한 하트가 있는 분들은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실 분은 정원형 집사(011-339-6464), 이영미집사(011-9912-4110)에게로 연락바랍니다.

4부 예배 유아돌봄부서인 "아이랑 꿈이랑"에서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봐주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명식집사(016-9226-7007)에게로 연락 바랍니다.

누리글 - 백 투 예루살렘의 도구

누리글은 온누리 말소리를 적어낼 수 있는 전지구적 표기수단(Global Writing System)으로서 훈민정음을 확장·발전시킨 글이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글-훈민정음(訓民正音)"은 그 탄생이 인간의 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신인협력(神人協力; synergism)'으로 이루어진 신물(神物; divine thing)이며, 온누리 선교에 귀히 쓰일 '누리글'로 확장·발전됨으로써 "백성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도구-구민복음(救民福音)"의 소임까지 맡은 진정한 하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창제 정신부터가 문맹퇴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글이며, 가장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글로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The Memory of the World)'으로 지정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다. 이러한 훈민정음은 뉴욕 주립대 명예교수 김석연 선교사에 의해 현대 음성과학적인 규명과 확장이 더해져 누리글로 전혀 손색이 없게 되었으며, "50분에 익히는 한글"이라는 놀라운 교육컨텐츠까지 개발되었기에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의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할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무기가 될 것

이다. 리처드 언더우드(Richard Underwood) 3세의 <한국 교회사-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서문에서 "한국에 복음이 가장 넓게 가장 빠르게 전파된 이유는 오로지 한글 때문이다"라는 지적을 돌이켜 보면 19세기말에 한국에 들어온 복음은 한문에 눌러서 5세기 동안 빛을 못 보던 한글을 살려내는 큰 산파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왕실에서 태어난 정음이지만, 5세기 이상을 한데에 쫓겨나 거지 왕자의 신세로 있던 정음을 살려낸 것은 1887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신약성서 <예수성경전서-1887>였다. 한자가 한 자도 섞이지 않은 순 한글 목판본이 나오으로써 정음은 비로소 독자적인 능력과 빛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19세기 말 복음이 들어와서 정음을 살려낸 역사에 비춰 볼 때 21세기 오늘날 정음-누리글이 앞서가서 문맹을 퇴치시키고, 선교의 사명을 가진 이들은 누리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상승효과(相乘效果-Synergy)를 거두게 될 것이며, 복음이 와서 정음을 살려낸 은혜를 누리글을 통한 복음전파로써 빛을 갠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 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 1시 이후에는 유소년축구클럽 관계로 이동주차하여 주십시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토요일은 어와나 끝나는 시간(5-6시)까지 개관합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http://cafe.daum.net/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전도예배	오후 2시 ~ 3시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방학	방학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